

로그아웃

ASTI소식

기업분석 서비스

정보광장

ASTI라운지


과학기술정보협회의가 중소기업과 함께합니다.

Association of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HOME ASTI안내 고객센터

정보광장

ASTI 컬럼



대면평가 - 작성 요령

김창화 (서울지역팀 I 서울)

20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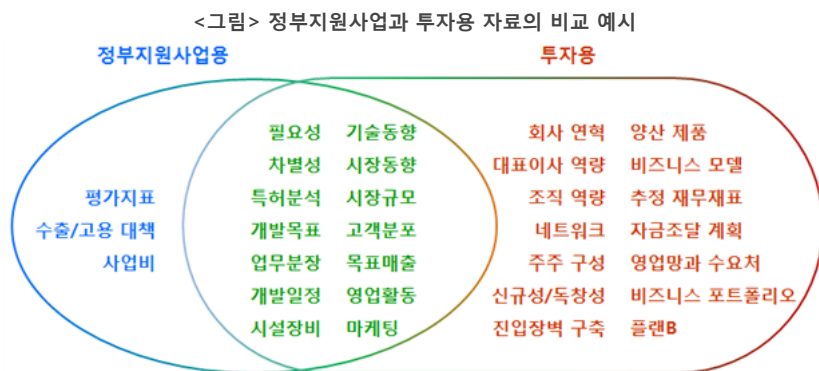
대면평가 - 작성 요령

대면평가는 서면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발표자료로 요약하여 구두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이때 발표자료는 주로 Micro:사의 PowerPoint® 형식을 많이 사용한다. 흔히 발표 또는 발표자료를 PT 또는 PPT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래는 규정하기 어렵고, 다 presentation 또는 PowerPoint®를 축약하거나 또는 그 format 확장자 ppt로부터 유래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Microsoft사의 PowerPoint® 외에도 Adobe사의 vector graphic format인 SWF를 사용하면 훨씬 매끄럽고 풍부한 표현으로 발표를 행할 수도 있겠으나, 아직은 디자인 전문가들만이 제작 가능할 정도로 제작 난이도가 높고 그에 따른 고비용으로 범용적이지 않은 편이다. 또한 발표자료도 경쟁이 치열한 대형과제에서는 약간의 비용부담으로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손을 거쳐 발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기부 산하 기정원의 발표에서는 좀 서툴다한들 발표자가 직접 제작하여 발표해도 선정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발표자료를 구성하려다 보면 지금까지 들어 본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 회사소개서, 또는 제품 홍보자료 등 자료들과 어떻게 다른지 혼동이 생길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대면 발표자료는 서면 사업계획서를 요약한 것이고, 본 컬럼 제3회에서 표현의 한계로 상징적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라고 권고했는데, 그러한 이미지들을 문장 및 도표와 병행하거나 단독으로 적절히 활용하면 훨씬 매끄러운 발표자료가 될 것이다.

아래 <그림>를 통하여 정부지원사업용 대면발표 자료와 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의 구성을 비교하였으니 참고하면 될 것이고, 절대 기준이 아니므로 혼용하거나 더 추가해도 되나, 투자유치용은 사업성 부분이 대략 60~70%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발표자료의 순서가 될 시나리오는 Microsoft사 엑셀(Excel®) 또는 3M사의 문구용 포스트잇(Post-it®)으로 '그럴 듯'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초안을 잡으면 된다. 특히 포스트잇은 여러 명이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하면서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 편리하게 브레인스토밍하여 초안 완성에도 수월 걸리며, 그 후 몇 일간 개발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지원사업용 대면 발표자료는 이미 제출한 서면 사업계획서 기본양식의 도표들을 우선적으로 배열한 다음, 그 사이에 중요한 문장들, 상징적 이미지들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발표자료의 매수는 1분당 1장 내외가 발표에 비교적 무난하다. 그러나 일부는 모든 것을 주장하고 싶은 생각에 20~30분 발표에 5내지 심지어 70장의 엄청난 물량공세를 하는데, 그 경우 오히려 핵심이 전체에 묻혀버려 선정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30분 발표의 경우 개발과 관련된 내용만으로 압축한 20매 구성을 가정할 경우, 기술성과 사업성의 비율은 평가 배점과 비슷한 40% vs 60% 비율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즉 20매 중에서 기술은 40%의 8매 이하가 적당할 것이나, 대부분의 개발들이 제3자에게 생소할 것이라 기술성 설명이 50~60%인 10~12매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어쨌든 20~25분을 기준으로 20~25장으로도 충분히 목적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

부족할 것이라는 염려보다 핵심을 압축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하여 함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술성 부분에서는 개발예정품의 개요 및 이미지, 필요성과 차별성, 특허 및 논문을 통한 기술동향과 출원특허 대표도, 개발목표! 이미지와 평가지표, 조직과 업무분장, 개발일정 등의 순서를 우선하고 독자적 상황들을 추가하여 배열하면 될 것이다. 그 후 사업성에서는 경쟁 또는 유사한 기술-제품-경쟁사/후보사, 시장규모, 고객분포(segmentation), 목표매출액 및 자금조달, SWOT 분석 등으로 성하면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 50장 100장의 물량공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발의 필요성, 목표, 경쟁의 틈새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논리를 함축하여 제시한다면 더 추구할 것이 없다.

대략 20장 내외의 발표자료가 완성되었으면, 질의응답 시간에 활용할 수 있을 참고자료들을 발표자료 뒷부분에 별도 첨부하여 제는 것도 선정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표시간에 활용하면 흐름에 방해될 실험사진들, 법적 근거 또는 특허 자료! 해당 문장, 사전홍보를 위해 접착한 해외 미팅사진 등을 첨부하여 발표후 질의시간에 활용하면 될 것이다.

만일 첨부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면 출력물로 준비해가서 질의응답 시간의 적절한 타이밍에 직접 제시해도 된다. 그래서 '유사한 질문'만 나오더라도 이미 장기간 심사숙고하며 노력해오고 있음을 최대한 립서비스도 하여 질의응답 시간조차 '제2차 발표시간'으로 가하는 기술에도 점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간혹 화면 1장이 무협지 한권 만들 정도로 뽀뽀하거나, 옛날 공중화장실 낙서처럼 지저분하다면 제3자 입장에서도 무엇을 강조하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그래서 각 화면마다 한두 개의 문장, 문장과 그림 또는 도표로 간단히 구성해서 핵심 전달에 주력하고, 나머지 희생시키는 것이 좋다.

이때 문장은 두세 줄 이하로 최대한 짧은 것이 시인성과 호소력에 유리하다. 그래서 소설보다 수필, 수필보다 시처럼 간결하게 구는 것이 좋은데, 모든 재고자산을 자랑하려 하지 말고 다 포기하더라도 강력한 키워드 배치에 주력해야한다. 또한 두괄식으로 배치하 핵심부터 먼저 인지되도록 하고, 강조해야 할 키워드는 밑줄(underline)과 굵은 글씨(bold)로 우선적으로 눈에 띄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글자나 도표의 색은 별다른 기교 필요없이 기본적인 검은색이 무난하다.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이나 진한 청색들도 좋을 것이나, 이를 두세 종 이상 혼용하면 산만할 수 있고, 회색은 잘 쓰면 아주 고급스럽지만 실내조도에 심하게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템플레이트 바탕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냥 흰색이 무난하다. 간혹 배경에 자기 취향의 로고나 고상한 문양은 화면의 내용전달 방해가 될 뿐이다. 특히 지금은 제품홍보가 아니라 지원사업 평가중이므로 꼭 사용하고 싶다면 아주 약한 파스텔 톤의 색상들을 있는 없는 듯 사용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외국의 발표자료들은 진한 적색, 진한 청색, 때론 검정바탕에 큰 글자 등의 강렬한 구성이 많! 아직 우리 정서와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인다. 만일 색상이 많이 동원하다보니 산만한 느낌이라면 혹시 주변에 디자이너들이 있을 경우 한번쯤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학습이 될 것이다.

글씨체(font)는 대체로 크고 명료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쉽게 추천한다면 기본적인 고딕~돋움 또는 바탕~명조 계열의 폰트! 겠으나, 아주 드물지만 젊은 연령층들 중에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쓰는 꼬불꼬불한 폰트로 자신은 즐거운 시간이었으나 남들은 속독느려져 괴로울 수 있다. 그래서 평가환경이 상대적으로 고학력, 장년층, 보수성향이란 공통점들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평범함이 무난 것이다.

발표장소의 화면크기와 거리를 추정할 수 있으면 적당한 글자크기도 미리 점검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곤란할 것이므로 충분히 글자를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중기부 산하의 전문기관 기정원의 본원(대전)과 지원(서울)에는 대략 10평(4*8 m) 이하 장방형의 발표! 입구에 65인치 이동식 TV를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임시로 조성되는 장소는 15~20평 정도 크기에 3,000 ANSI 이상의 고급 빔프로! 에 80인치 내외의 스크린이 사용됨을 참고하면 된다. 그래서 PowerPoint®의 글자크기로 기준할 때 제목 30 내외, 내용 15~20의 크! 문장도 단순하게 구성하면 거리에 무관하게 시인성이 좋을 것이다.

문장보다 문장을 대변할 상징적 이미지를 병행하여 활용하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서면의 사업계획서에서도 상징적 이미지를 용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가급적 추가해서 활용해보기를 권한다. 대표적으로 제품의 개요와 관련된 상징적 이미지, 특허의 대표! 개발목표와 관련된 3D 투시도 또는 P&ID(Piping & Instrumentation Diagram) 등이 있고, 그 외에도 학회 및 전시회 참석상황을 문! 로 표현하기보다 실제 진행했던 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문장을 대변할 상징적 느낌이 불현 듯 떠오르기 쉽지는 않겠지만, 구글 검색하다보면 감이 오고, 조금 수고하면 목적하던 느! 유사한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상업적 용도의 회사 카탈로그나 매뉴얼 등의 작업! 온라인에서 검색한 로고, 심볼, 클립아트, 사람모델 이미지 등이 대체로 소액이므로 반드시 정식사이트에서 유료구매를 권고한다.

발표자료에 동영상의 활용은 가급적 배제를 권장한다. 혹시 재생불가 사고로 모두가 나만 쳐다보는 죄송스런 분위기에 다음 scrip! 생각 안나면서 맥을 놓치면 몇 달 꿈꾸던 미래가 허망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또는 현장상황을 동영상으로 부각이 필요하! 수십 초 이내로 가급적 짧게 만들고, Microsoft사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재생가능한 Window Media Player의 WMV format으로 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버전의 PowerPoint®는 오피스 내장코덱(CODEC)으로도 대부분의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어 별도의 오디오/비디오 코덱이 불! 요하다. 그러나 그 동영상이 언젠가 오래된 버전의 PowerPoint® 에서도 재생 될 후일을 대비하여 50여종 동영상 format 중에서 앞! 언급한 WMV 또는 AVI, MP4, MPG 등으로, 이미지는 JPG, GIF 등으로 가장 범용적 format으로 미리 변환해 두기를 권고한다.

간혹 고학력 발표자들이 자료구성에서 범하는 실수로는 연구분야 업무에 익숙하기 때문인지 모르나, 지원사업 평가에서 발표중인 학술세미나 주최하는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기관점의 온갖 중요연구들을 자랑하느라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했던 쟁관계의 기술 및 제품이나 시장상황 설명도 부족하고 시장진입이나 수출전략은 개념도 없어 보인다. 지원사업은 목표제품에 대한 성과 사업성에 대하여 평가받고, 대부분 이미 서면의 사업계획서로 제출했던 내용들을 발표에 맞게 재구성하면 되는 것이다.

발표자료 전체를 영어로 구성하는 당황스런 경우도 있다. 방금 실리콘밸리에서 IR 하고 귀국했든, 내일 유럽 바이어 때문 바쁘든, 세미나도 아닌 한국의 지원사업 평가발표에서는 한글로 만드는 것이 기본이며, 상대에 대한 배려도 모르는 경영자가 경영은 잘 할까는 의구심으로 불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발표자료에 투자유치용 IR 자료를 짜깁기해서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즉, 발표 시작부터 회사연혁, 수상실적, 투자유치, 글로벌 MC 등을 지저분하게 배치하여 자랑하느라 개발한다는 내용은 언제 나올지 암울하다. 그렇게 불필요한 자랑으로 혼자 들떠서 세상 모든 업 다 할 듯하다가도 속된 말로 '싸'한 느낌을 온몸으로 감지하면 영문도 모르고 풀이 죽어 맥 빠진 상태로 발표를 마친다. 지원사업; 회사의 역량을 평가받는 시간이 아니라, 개발대상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는 시간이며, 꼭 회사소개를 추가하고 싶다면 마지막 두 페이지에 살짝 언급하든가 구두발표에서는 생략해도 좋다.

완성된 발표자료는 이메일 또는 온라인 업로드를 하더라도 만일의 작동사고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USB에 저장하여 지참을 권하고 일 발표일에 USB로 제출할 경우 2개의 USB를 병행 지참하거나, 이메일 발송도 해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컬럼(제8회)에서는 대면평가에서 발표하는 요령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 본 내용의 수치와 기준 등은 정부의 정책 또는 부처별 전략에 따라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재보기

이전글

▶

현장평가

다음글

▶

대면평가 - 발표 요령

댓글(4)

♥ 좋아요 0

0 / 500자

정용하 2014.04.21

좋아요

정연학 2014.04.19

좋아요

박진수 2014.04.19

좋아요

윤치영 2014.04.16

정보감사합니다

ASTI소식
공지사항
ASTI 일정
회원사뉴스

기업분석서비스
스마트기업검색
밸류넷 분석
밸류체인 분석

정보광장
ASTI 컬럼
ASTI 성공사례
ASTI 마켓리포트
ASTI 인

ASTI 라운지
ASTI FAMILY BROCHURE
ASTI BAND
기업홍보